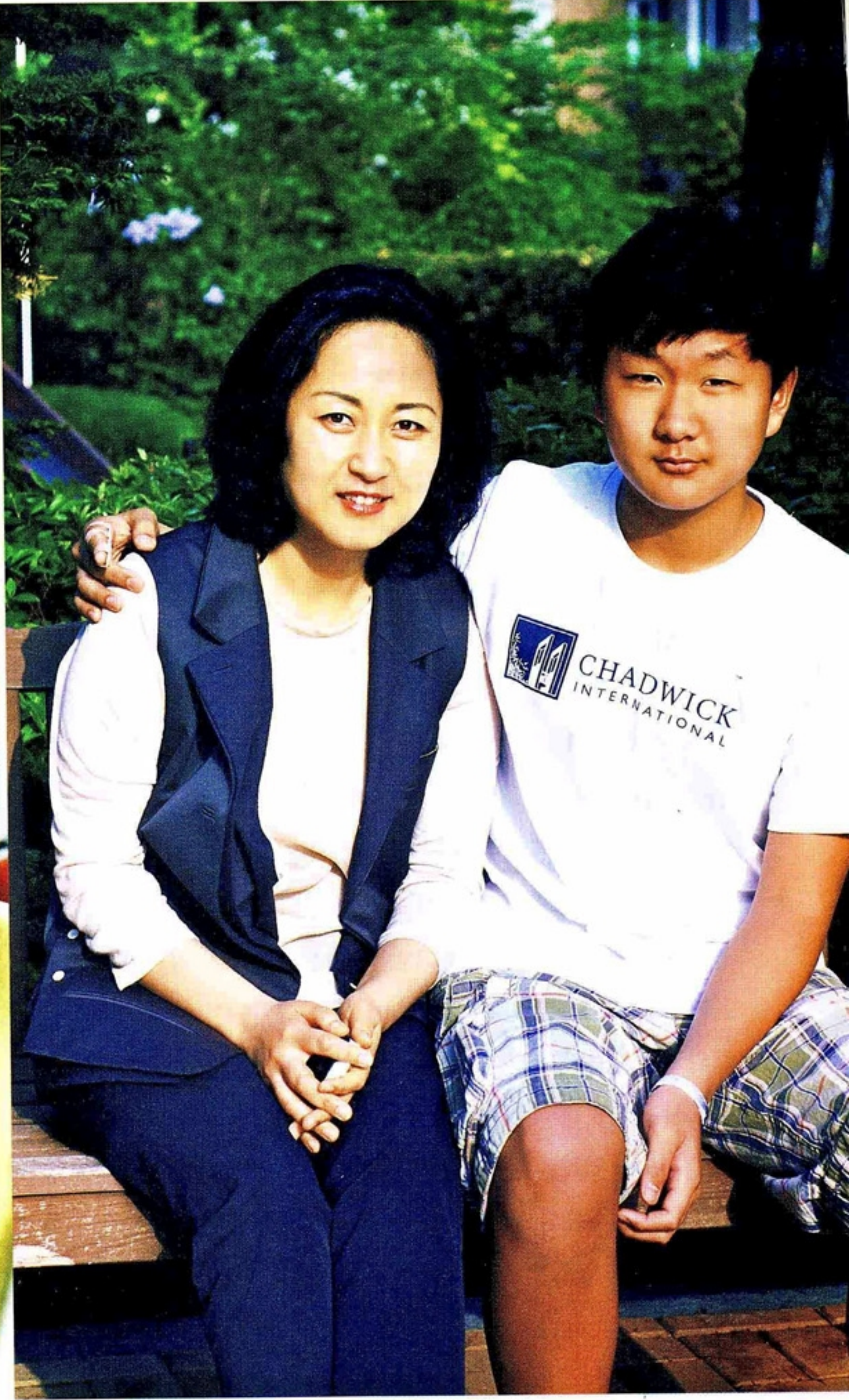




캐나다 조기유학을 다녀온 오준호 학생과 어머니 고선형 씨.



체드윅 송도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구다니엘 학생과 어머니 문은미 씨.

실제 사례를 통해 장단점을 알아봤다
조기유학 vs 국제학교

조기유학과 국내 국제학교는 외국어 교육을 지향한다는 점은 일치하지만 비용이나 환경 측면에서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우리 아이와 가족의 상황에 맞는 외국어 교육은 어떤 것일까. 자녀를 해외로 조기유학 보내거나 국내 국제학교를 보낸 실제 사례를 통해 각각의 장단점을 짚어본다.

취재 서효정 기자 | 사진 프리랜서 이지수 | 장소협찬 토끼의지혜 강남점(02-337-1457)

캐나다 조기유학, 대원외고 프랑스어 과 1학년 오준호

초등학교 4학년 때 캐나다로 유학 가서 6학년 때 귀국, 국내 일반중학교를 거쳐 올해 대원외고 프랑스어과에 입학한 오준호 학생. 준호의 셋째 누나는 조기유학 후 현재 미국 일리노이 공대에 재학 중이고, 첫째와 둘째 누나는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밟고 있다. 준호의 어머니 고선형 씨는 네 남매 중 막내로 자란 준호는 어렸을 때부터 활발하고 긍정적이며 자유로운 아이였다고 말한다.

“처음에는 중학교 2학년이었던 준호의 셋째 누나를 조기유학 보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이던 준호가 자기도 누나와 함께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준호는 어렸을 때부터 당차고 자유로운 아이여서 언제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준호가 너무 어리다 보니 준호 아빠는 반대했지만, 준호가 원한다면 기꺼이 보내주자는 생각이었죠.”

준호를 유학 보내기 전 고선형 씨는 여느 아이들처럼 외국어학원 등에서 영어를 가르쳐봤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말한다. 달달 외워서 하는 것은 점수를 잘 받아오는데, 그건 그때뿐이고 전체적인 영어실력이 향상되지는 않았다고. 결국 근본적인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사실 저도 어린 시절 외국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거든요.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그 당시 배운 영어만으로도 지금까지 영어로 대화가 가능할 정도라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린 시절 학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현지에서 배우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제가 체험해봤으니 한 번쯤은 보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로서 아이를 홀로 외국에 보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먼 미래를 봤을 때 지금 잠시 떨어져 있더라도 그것이 아이 미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이렇게 유학을 결정하고 난 후에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유학원을 찾는 일이 뒤따라야 한다. 요즘에는 워낙 유학원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아서 내 아이에게 맞는 곳을 찾는 일이 쉽지만은 않지만 고씨



“어린 시절에 학습한 경험은 평생 동안 기억에 남아,
무엇보다 아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외국어 공부를 할 수 있어”

는 홈페이지만으로 유학원을 선택하기보다 유학원을 몇 군데 직접 찾아가 원장과 상세히 상담해볼 것을 권한다.

“아이가 어린 만큼 제대로 된 유학 프로그램이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짜여 있는지,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곳인지, 혹여나 유학기간 중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시 바로바로 해결이 가능한 곳인지 등 이것저것 꼼꼼하게 따져봤죠.”

미국이나 영국보다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적응하기에 유리한 캐나다 전문 유학원을 정하고, 본격적으로 캐나다 유학 준비에 들어갔다. 유학원과 상세한 상담을 통해 준호와 가장 잘 맞는 홈스테이를 추천 받고, 2년간의 프로그램을 체크했다. 그렇게 영어단어도 몇 단어 모르는 나이에 떠난 유학이었지만 준호는 가족이 보고 싶었다는 것 외에는 어렵거나 힘든 점은 없었다고 말한다.

“초등학생들은 나이가 어리다 보니 외국인에 대한 경계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고등학교보다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없는 편이죠. 처음에는 영어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는데도 굉장히 재미있게 어울리며 학교 생활을 한 기억밖에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



오준호 학생은 2년 간의 캐나다 유학 생활을 마치고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렇게 몇 개월을 지나다 보니 영어도 자연스럽게 익혀졌고요.”

캐나다에서 준호가 머물렀던 곳은 밴쿠버에서도 차로 두세 시간 떨어진 조용한 시골마을이었다. 말을 열일곱 마리나 키우는 넓은 집이었다. 크고 넓은 정원이 아름다운 곳에서 맑은 공기는 물론이고 넓게 펼쳐진 자연을 매일 감상하며 공부할 수 있어서 더욱 좋았다는 준호. 학교는 ‘세인트메리’라는 사립학교를 다녔는데, 20명 정원인 한 반에 한국 학생은 두세 명이라서 비교적 빨리 영어를 익힐 수 있었다. 방과 후에는 유학원 프로그램에 따라 영어 토론 수업 및 수학 수업을 받으며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학업에 뒤처지지 않도록 꾸준한 관리를 받았다.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사실 한국에서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공부, 특히 외국어 공부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하지만 그곳에서는 어떤 누구의 강압도 없이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힐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았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배우면 영어문장을 봐도 한국어로 연상한 다음 그것을 번역해야 하는데, 현지에서는 어떤 문장을 봐도 바로 영어로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한국 나이로 열세 살 때 한국으로 돌아온 준호. 조기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준호는 한층 더 성숙해져 있었고, 시야도 넓어져 있었다. 모든 일에 긍정적인 태도로 임하며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 국제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원대한 꿈을 스스로 키우는 아이로 자라게 된 것.

“준호가 유학에서 돌아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혼자 유럽 배낭여행을 다녀오겠다고 말하더군요. 처음에는 당연히 반대했지만, 자신감과 용기로 가득 찬 아이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아이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준호는 혼자서 2주 동안 유럽 배낭여행을 건강히 다녀왔고, 그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도 했죠. 모두 다 누가 시켜서가 아닌 준호 스스로 좋아서, 원해서 한 일이에요. 아이가 이렇게 진취적이고 창의적으로 자라줘서 정말 감사할 따름이에요.”

채드워 국제학교 7학년 구다니엘

한국 나이로 열네 살인 구다니엘은 송도에 위치한 채드워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3학년 초까지 아버지를 따라 온 가족이 잠깐 미국에 살았고, 상하이 국제학교에 잠시 다녔던 경험을 거쳐 지난해 9월 채드워 국제학교에 입학한 것. 다니엘의 누나인 예은이는 한국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이다. 어머니 문은미 씨는 독일어 전공자로 자신이 언어를 전공한 만큼 언어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어렸을 때부터 수학이나 과학 같은 교과목보다 언어교육에 중점을 뒀다. 처음에는 아이들 모두 조기유학 보내려고 계획을 세우기도 했지만 아이가 너무 어린 나이에 홀로 외국에 갔을 경우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 국내 국제학교를 선택했다.

“다니엘이 초등학교 2학년 때 남편을 따라 온 가족이 미국에서 1년 정도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들을 미국에서 공부시키려 했기 때문에 미국의 학교를 알아보고 다녔죠. 하지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국에서 살아보니 우리나라와 문화 자체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부모가 함께 있지 않은 이상 아이 혼자 겪게 될 문화적 충격이 염려돼 차마 아이를 두고 올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조기유학이 좋은 점도 있다. 어렸을 때부터 독립심 강하고 자생력이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것 대신 감수해야 할 점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 머물면서 많은 유학생들을 봤는데, 대학교 때 유학 와도 폐단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그렇다 보니 외국어 교육에 있어 조기유학 자체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 요즘에는 국내에서도 조건에 맞는 학교를 찾기가 많이 쉬워졌어요. 국내 국제 학교를 알아보던 중 채드워 국제학교를 알게 된 거죠. 외국인학교와 다르게 내국인 학생에게도 입학 자격이 주어지지만 교육 커리큘럼은 외국인학교 못지않게 확실한 외국어 교육은 물론이고 다양한 클럽활동을 접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좋더라고요.”

다니엘 역시 국제학교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 상하이에서 잠시 학교를 다녔을 때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자신감이 넘친다는 것. 아무래도 외국에서는 아이가 스스로 움츠러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모 밑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성격도 훨씬 더 활발해졌다.

“어디를 가든 우리 아이가 외국인이 되는 거 같아요. 아무래도 본국 학생들보다 외국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반대로 한국에서는 어려움을 겪어도 부모와 가족이 있으니 훨씬 이겨내기가 쉽죠.”

다니엘은 현재 학교에서 록밴드 활동을 한다. 국내 일반학교보다 훨씬 다양한 클럽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채드워 국제학교만의 장점이다. 실제로 유학을 보냈을 때는 외국어 공부에만 치중하는 반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외국어를 배우다 보니 클럽활동도 훨씬 활발하고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일단 부모가 학교 상황을 상세히 알 수 있으니까 아이들을 지원하기도 쉽죠. 유학을 보냈을 경우에는 아이의 하루 일과나 기분 등 미묘한 변화를 다 알 수 없잖아요. 아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옆에서 살펴봐줄 수도 있어서 좋아요. 또한 다양한 활동을 하니까 아이의 재능을 찾기도 훨씬 쉬워져요. 다니엘은 영상편집이나 음악 쪽에도 뛰어난 재능이 있더라고요. 국제학교에 다니지 않고 일반 학교에 다녔다면 이러한 재능도 일찍 알 수 없었겠죠.”

다니엘의 부모는 자녀 교육에 있어 부모가 길을 잡아주기는 하지만 모든 선택은 본인 스스로에게 맡긴다. 본인이 싫어한다면 절대 강요하지 않는다. 다니엘이 국제학교에 입학한 것도 본인의 의지가 있었



학교에서 클럽 활동 중 하나로 록밴드 활동을 하는 구다니엘 학생.

“국내에서도 조건에 맞는 국제학교 찾기가 쉬워졌다. 내국인 학생에게도 입학 자격 주어지며 외국인학교 못지않게 확실한 외국어 교육과 다양한 클럽활동 접할 수 있어 한층 안정적이고 효율적”

기 때문이다. 부모가 무조건 끌어가야 아이를 바로잡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지만, 그 기간 동안 아이는 과연 행복했느냐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대학입시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은 아이가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아이가 국내 대학을 갈지 외국 대학을 갈지도 온전히 아이 선택에 맡기려 한다. 이런 교육관은 채드워 국제학교와도 일치한다. 교육의 주체는 학생이고 부모와 학교는 학생을 위해 최고의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니엘은 물리에 흥미를 많이 느끼더라고요. 앞으로 과학자가 되고 싶대요. 무엇을 하든 다니엘이 행복해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아낌없이 지원할 생각이예요. 국제학교 속에서 자유롭게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가 자신의 꿈을 마음껏 키워갔으면 좋겠어요.”